

본 스크립트는 KERIS에서 운영하는 영어스크립트 제작봉사단(OES)의 영어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번역자 : 장진우(고려대) 정병도(한양대) 박지원(중앙대)김미나(University of Wisconsin Medicine)

SDF2014

* 연사: 로라 아미코 (Laura AMICO), 크리스 아미코 (Chris AMICO)

* 연설: 그녀를 위로한다: 호미사이드 워치 D.C. 를 통해 배우는 데이터, 독자, 사용자 중심의 뉴스에 대한 이야기
(I Comfort Her: What Homicide Watch Teaches Us About Data, Audience, and Designing News Around Users)

세분의 연설을 함께 잘 들어 보았습니다.

We heard speech of three people well.

자, 디지털 시대, 언론에서도 참 많은 실험을 하고 있고 많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Now, in digital era, media is trying so many experiments and dreaming many innovations.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는 정말 양심에 맡기고, 또 여러분들 자신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I think it is matter of people's conscience and is a problem left only to their own about how much differences is made, indeed.

한 회사는 모든 죽음을 기록하고 모든 피해자를 기억하며 모든 사건을 추적한다라는 말을 모토로 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ne company operates under a moto of "recording all death, remembering all victims, and tracing all cases".

미국 워싱턴디씨의 모든 살인사건을 취재해 추적하는 웹사이트 **호미일** 사이트 "WatchDC"를 만든 GlassI미디어의 CEO 로라 아미고와 CTO 클리스아미고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lass-I media's CEO Lora Amigo and CTO Chris Amigo who made "WatchDC" website that trace all homicide cases in Washington D.C said the role of media in digital era need to change.

과연 미디어가 어떤 역할까지 하게 되는지 궁금증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ask question of what role media have to play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Let's give applause.

Thank you very much for spending your afternoon with us here today.

오늘 저희와 함께 오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We are so very excited to be here in Seoul.

이렇게 서울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We have shared a lot of stories today, and the story that Chris and I will share with you is not our story so much, as it is a story about Washington D.C.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고,저와 크리스가 공유할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워싱턴 디씨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It is a story specifically about one young women, a neighbor of ours, named Lucy Panale, and this is Lucy.

이야기는 저희의 이웃인 젊은 루씨퍼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이 사진은 루씨이지요.

She was a neighbor when we lived in neighbor called Columbia Heights.

그녀는 우리가 콜롬비아 하이츠라는 동네에 살았을 때의 이웃입니다.

And her home, a tall brick roadhouse with a small pocket of porch on a street of similar homes was a little more than one kilometer from our apartment.

비슷한 집들이 놓여있는 작은 현관을 가진 커다란 벽돌 로드하우스인 그녀의 집은 저희의 아파트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It was a walkthrough of leafy(or lippy??),urban neighborhood of northwest Washington D.C.

그곳은 워싱턴 디씨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적 인근이었습니다.

Lucy was 18 years old and attended Caldojohighschool.

루씨는18살이였고 칼도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It is a large high school in the center of the city, just a few blocks away from our home.

고등학교는 저희 집과 몇 블록 떨어져 있는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매우 큰 학교입니다.

And it was a Saturday night in February, the streets were cold and dark and Lucy was sitting on that small front porch.

2월의 토요일 밤,거리는 춥고 어두웠고,루씨는 그녀의 집 작은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Like a lot of 18 year old and many of us, she checked in to Facebook that night and shared what she was doing.

많은 18살과 우리들이 그렇듯,그날 밤그녀는페이스북에 들어갔고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를 올렸습니다.

This is what she said, “Sitting On My Porch With My Bestfriend Chilling”.

“나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우리집 현관에 앉아서 휴식”은 그녀가 올린 말입니다.

I saw that message hours later, after two men wearing masks walked pass that porch, drew guns, and fired, after Lucy and her friend were struck by the bullets, after police sirens, and after the ambulances.

저는 이 메시지를 수시간 뒤인 마스크를 쓴 두 명의 괴한이 현관을 지나가며 총을 꺼내 발포 한 후,루씨와 그녀의 친구가 총에 맞은 뒤,경찰의 사이렌이 울린 뒤 그리고 앰불런스가다녀간 뒤에 보게 되었습니다.

She was my neighbor, but I did not know Lucy.

그녀는 저의 이웃이었지만,저는 루씨를 몰랐습니다.

I began to know her as my Tweet deck searches start to filling up with her name.

저는 저의 트윗덱서치가 그녀의 이름으로 가득 찰 때에 비로서 그녀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Now I am a crime reporter. I am a **bit reporter**.

저는 지금 범죄 리포터입니다.저는 **비트리포터** 입니다.

And so my Tweet deck searches contain words like “shooting” and “R.I.P”.

그래서 저의 트위터덱은“총격”이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 포함된 단어들을 검색합니다.

And on this night in February, this dark, cold night with the police sirens going up the street on their way to Lucy’s home, these were the messages I saw,.

2월의 그날 밤,루씨의 집으로 향하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운 그 추운 밤,저는 여러 메시지들을 보았습니다.

And as I read this I began to sense Lucy’s youth, her energy as you can see in her photo, her love of life, and the impact of her death on her neighborhood. My neighborhood.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읽어감에 따라 저는 루씨의 젊음,그녀의 사진에서 보이는 에너지, 삶을 향한 그녀의 사랑,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그녀의 이웃, 즉 저의 이웃에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s messages rolled in, as Lucky was remembered and mourned, and celebrated.

메시지가 밀려옴에 따라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슬퍼하고 기념했습니다.

Lucky's family and friends came to **HomicideWatchD.C** as well for news about the case, in the weeks that followed, whether or not there were any arrests, whether or not there are any developments in the case.

로씨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뉴스가 몇 주 내내 이 사건에 대해 떠들고,체포가 이루어 지든 말든, 그 사건에 전개가 있든 말든 모두 살인사건 워치디씨에 모였습니다.

But they also came to homicide watch because this was the place for them to be together, to share their stories, to talk about their experiences and to remember Lucky.

그들이 살인사건 웨치에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그곳이 그들이 같이 모이고,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그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루씨를 기억하기 위한 곳이었기 때문 입니다.

It was a gathering place, a community square, a plaza, a community where Lucki Pannell and what happened to her mattered, where she was not a number in the annual murder telly at the end of the year.

이곳은사람들이운집하는장소였고, 사교의장이자, 모임공간이었으며, Lucki Pannell 의공동체인동시에, 단지살인사건으로죽어가는한명의사람이아닌그녀에게일어난사건을추모하는장소였습니다.

This is Lucki's page on Homicide Watch D.C.

It shows you everything we know about her case, including on the map where she died,

이것이 Lucki 의사망사건을다룬페이지입니다.

이페이지는그녀의살인사건장소를포함한그녀의사건에대한모든것을보여주고있습니다.

on the left-hand side, It shows you her photo and a link to her obituary, when she died, her age, gender, race and cause of death.

왼쪽에보시면, 그녀의사진이있구요, 그녀의부고에대한링크가있습니다.

그녀의사명날짜, 나이, 성별, 인종그리고사망의원인이나와있습니다.

Down the centre, it tells you the latest news.

Now these are the traditional stories that you might see in your newspaper.

중간부분에는이 사건과 관련된 최신 뉴스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실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기사입니다.

But I want to draw your attention back again to that left-hand bar,

because there are two really interesting things here.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신문의 좌측면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first is the names of the detectives who are responsible for this case and their phone numbers.

Now for journalists, this means that we are able to keep track of which detectives are assigned to which cases and then look at which places are closed in what amounts of time.

첫 번째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론가들에게는 일반 독자인 우리가 어떤 수사관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와 종결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It means we get to know detectives based on which cases they are assigned to.

But it also means for the public when they visit this page whether it's one day after Lucki's death, or 2 years or 3 years later, that they knew who to call, if they had information.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어느 수사관에게 할당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대중이 어떤 정보가 있다면, Lucki 의 죽음 다음 날 혹은 2 년,

3 년 뒤에도 이 페이지를 방문하여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ow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that I wanted to point out to you is right above that where it says suspects.

And what this page tells you is that there has been an arrest in this case at this point, and when we read the news we see that though there has been a suspect arrested a little over a year ago, he has not yet stood trial.

자이제제가알려드리고싶은두번째중요한점은우측면에보이는용의자와관련된항목입니다.

그리고이항목에서는사건발생지점에서체포된범인들에대한정보를제공합니다.

또한일년여전에체포된용의자가아직도재판에회부되지않았다는뉴스를볼수있습니다.

And so what this page captures is a cumulative narrative of the world of this case.

When we look at the suspects' page, we see the same thing, that cumulative narrative that gathers over time.

따라서이항목에서는이사건에대한모든것을누가적(累加的)인서술로확인할수있습니다.

**우리가이용의자들이나온페이지를볼때,
시간을두고축적된공통된정보들을확인할수있습니다.**

And we see the information on his page about the case too.

We see that he is one of about 90 people in D.C. right now whoever murder charge pending against them.

또한우리는이사건에대한정보가나와있는용의자의페이지를볼수있습니다.

**우리는지금워싱턴 D.C 지역에서살인사건용의자로구류중인
90 명의용의자중한사람을보고있습니다.**

Now what makes Homicide Watch different is the belief that every one of those cases matters, ThatLucki Pannell's case matters, and Dengelo Williams case matters.

And that we are going to cover them from crime to conviction.

현재 Homicide Watch 는 Lucki Pannell 의사건 그리고 Dengelo Williams 의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사건들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건의 발단, 진행과정 그리고 판결까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This is the promise we make to our community.

The promise is on the top of the site next to Homicide Watch D.C.,
it says ‘Mark every death, Remember every victim, Follow every case’.

이것이 우리가 지역사회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Homicide Watch D.C 사이트 맨 위쪽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죽음을 기록하고, 모든 희생을 기억하며, 모든 사건을 뒤쫓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And so these pages, Lucki Pannell’s and the Deangelo Williams’ are two of more than 600 documenting every murder victim and suspect in Washington D.C. since we launched in September 2010.

그리고 이 페이지에는 2010 년 9 월 이 페이지가 시작된 이후 Lucki Pannell 과 Deangelo Williams 를 비롯한 600 명이상의 살인 사건 희생자 각각의 파일과 Washington D.C 의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Now I am a traditional beat reporter, I come from the Newsrooms, and so this is into the way I learned to do journalism,

but it’s a way that makes a lot of sense because Homicide Watch at its core is beat reporting.

저는 beat 리포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 편집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제가 언론인으로서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배우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Homicide Watch 의 경우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beat 리포팅이기 때문입니다.

But it's also about making reporters affective by building resources and context over time, as we do on these pages that cumulative narrative that shows you at any moment what the world looks like in that case.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리포터들을 감정적으로 만듭니다.(8'37'') 취재 자료들을 취합하고, 시간을 두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누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해내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And this helps reporters and readers understand that any moment how a particular case is usual or unusual,

what is the same about it with those 600 other pages or what is different.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취재자와 독자 모두 어떤 특정 사건이 일상적이든 특별한 일이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따라 다른 600 건들의 살인 사건 중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is helps us check our assumptions and not make bad decisions.

The cumulative narrative in data on each victim page and suspect page also serve as a field guide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elping our community better understand what happens when somebody is killed or somebody is arrested.

이런 도움들은 우리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들을 확인하고, 오만에 대한 위험을 낮춰줍니다.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희생자들의 누가적 서술과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는 어떤 희생자가 존재하는 지 혹은 어떤 용의자가 체포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법부의 적절한 형사 사건 판결을 위한 안 내문으로도 활용됩니다.

A former D.C. murder prosecutor once told us how important this is,

and he said unfortunately most people do not have any real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working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uch less have the ability to keep up with any individual case.

前워싱턴 D.C 의검사는일전에이러한시스템의중요성에대해말한적이있습니다.
그리고그는불행하게도많은사람들이일반적으로이루어지는사법부의형사재판과정에대한어
떤실제적이해도이루어지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

That goes for the victim's family, the suspects' family, and the general public at large.
Strangely the victim's families, the defendants' families and the general public often
simultaneously feel the system is stacked against them.

이러한상황은미시적으로는희생자의가족, 용의자의가족,
나아가거시적으로는일반대중들의이해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말했습니다.

한가지이상한점은희생자와용의자들의가족, 그리고일반인들의경우에종종형사사법제도의
불리함을동시에느끼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Our job then, when we take it seriously, is so much more than just reporting.

우리의 할 일은,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보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It's reporting with context and data that builds narrative and story over time.

데이터와 글감들을 가지고 하는 보도가 이야기와 묘사를 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It's reporting that helps people better understand and engage with the systems they're part of,
maybe because they see themselves in it when they look at Lucki's page or Deangelo's page, or
they see their son or a friend, and for doing it right, reporting in this way, is reporting that provides
the way forward, to change.

보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포함되어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아마 Lucki's 페이지나 Deangelo's 페이지나 자식들이나 친구의
페이지를 봤을 때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그리고 올바르게 것을 하는 것이 좀 더 앞서나가게 도움을
주는 방향입니다.

크리스- When we talk about the journalism we do on Homicide Watch, we don't often talk about
covering a beat so much as we talk about creating a space.

Homicide Watch에서 저널리즘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통제하는 것보다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So I want you to imagine a room, something smaller than this room, but a room, and on the wall to your left is everything we know about the victims of homicide in Washington D.C., their names, their faces, stories, memories of them shared by friends and family.

방을 상상해보세요, 지금의 방보다 더 작은, 그러나 방을, 그리고 너의 왼쪽에 있는 벽에는 살인자의 희생자에 관한 아는 것들이 모두 적혀있습니다 가령, 그들의 이름, 얼굴,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들이 말이죠.

On the wall to your right is everything we know about the suspected homicide, presented us people who are innocent till they are proven guilty.

너의 오른쪽에 있는 벽에는 유죄라고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죄의 신분으로 있는 살인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이 적혀있습니다

And on the wall that connects those two i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그리고 그 둘의 벽을 연결하는 것은 범죄 정의 시스템입니다.

And everything we know about the relationships and the connections between victims and suspects of homicide.

희생자와 살인자로 추정되는 인물들 간에 관계나 연결고리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Think about this room, it has walls, it has a foundation, and the space that's created is here for us together, our job is to maintain this space.

이방을 생각해보세요, 벽이 있고, 토대가 있으며, 그리고 함께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공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So to build this space and the site, we had to understand our audience, the people we wanted to invite in, we were after all newcomers to D.C. when we started the site.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객들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들, 우리는 D.C.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We are both from California, the city struggles with violent crime go back more than a generation.

우리는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많은 세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We spent nearly a year watching how people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violent crime, about homicides and where they talked about it.

우리는 일 년 가까이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와 살인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나갔는지 지켜보았습니다.

We looked at the facebook memorial pages, listened in on twitter conversations, watched the comment threads on the online obituaries.

우리는 페이스북의 죽음을 기념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함께 나눈 대화들과 죽음을 알리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We saw people looking for the most basic information, where and when homicides happened, who was killed and how.

우리는 언제 어디서 살인이 일어났고 누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와 같은 정말 기본적인 것에 대해 알고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We saw the struggles to understand what happens next, sometimes long and grinding process of justice.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긴 정의의 과정까지, 알고자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We saw families and friends going to court keeping each other updated and trying to make sense of what had happened and what kept happening.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이 법정에 가서 서로 뭐가 일어났고 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we saw the ongoing efforts to memorialize the dead, the facebook photos, the bottles and stuffed animals next to a tree, the t-shirt with a friends' face.

우리는 페이스북 북의 사진, 물 병, 나무 옆의 동물 인형들, 친구의 얼굴이 있는 티셔츠를 통해 죽음을 기념하려는 노력들을 보았습니다

We built Homicide Watch for these people. We built it around what we saw them trying to do.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Homicide Watch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들이 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해서 만들었습니다

When we talk about the profile pages for victims and suspects so it's easy to know where case stands.

우리는 희생자와 용의자들의 프로필 페이지를 이야기 할 때는 이것이 그 사건들이 어디쯤 있는지 알려고 하기 위해서 입니다.

We post court documents and keep a public court calendar of upcoming hearings so you can see how the justice system works.

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법정문서들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공청회를 알리는 요일 달력을 올립니다.

We track how cases end. This is important and I think we are the only ones who do this.

우리는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추적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But it's critical because when someone is cleared of a crime, we want there to be no mistake.

그러나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마쳤을 때 실수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Finally, we ask things of our audience. We say share with us your memoires, your photos, your stories, help us understand who you've lost.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잃은 기억들과 사진 이야기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In return we make promise to our audience, to mark every death, remember every victim and follow every case.

그리고 모든 죽음과 그 희생자들을 모두 기록하고 모든 사건들을 쫓기로 약속합니다

로라- The model works and it's replicable. Through partnerships with the Chicago Suntimes, the Trentonian and Northeastern University, Homicide Watch sites are now in 4 cities across the US.

이모델은작동하고또한복제가능합니다. 시카고선타임즈, 트렌토니안그리고노스이스턴대

학의협력관계를통해 Homicide Watch 웹사이트는미국전역에걸쳐 4개도시에서운영되고있 습니다.

We hope to grow both within the US and internationally because we think all communities can benefit from this empathy-driven coverage.

우리는미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성장하길희망합니다. 왜냐하면우리가생각하기에모든 공동체가동정심에이끌린보도로부터혜택을얻을수있기때문입니다.

It's important because it changes not just the way media covers crimes in these cities, but the way communities see themselves in crime and their place in it.

이것은대중매체가이러한도시들에서발생하는범죄를다루는방식을변화시킬뿐만아니라, 공동체가범죄속에서그리고그장소에서그들자신을바라보는방식을변화시키기때문에중요합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homicide watch and other crime reporting projects is this, a map. A map is valuable if you are from out of town, or you are maybe looking to buy a house or to move or you don't know anyone who's involved in a crime.

Homicide Watch와다른범죄보도프로젝트의차이점은바로지도입니다. 지도는당신이지역사회밖에있거나집을사거나이사하고자할때또는범죄에누가가담했는지알수없을때에가치있게 사용됩니다.

But it only tells you one story, where crime happens. The story Homicide Watch tells is different. It's about this. It's about people.

그러나지도는오직어디서범죄가발생했는지를보여줍니다. Homicide Watch의보도는다릅니다. 이것은사람에대한이야기입니다.

People who we know because they live in our communities and we meet them at the grocery store and on the subway and on the bus.

우리가아는사람들은우리공동체에있으며우리가식료품점에서그리고버스와지하철에서마주치는사람들입니다.

It's about finding one another on common ground, sharing and helping one another move forward, it's about finding truth and looking at ourselves in our community for what it is, and maybe changing what we want it to be.

이것은공동의근거에기반해서다른사람을찾아내는것입니다. 또한이는다른사람을앞으로나아가게하고, 진리를탐구하며, 공동체안에서의우리의모습을그자체로보게할뿐만아니라, 우리가원하는방식을변화시킵니다.

One of my favourite moments covering homicides in D.C. happened at the court house shortly after we started Homicide Watch.

제가가장좋아하는살인에대한보도는저희가 Homicide Watch를시작하고오래지나지않아서 워싱턴 D.C.에있는 court house에서발생한사건입니다.

And a detective pulled me aside one afternoon and he wanted to tell me about a teenager he'd had in for questioning on homicide. He said he sat the kid down, and the kid realized that he was in on a very serious charge, that he was in fact, in on a murder charge.

그리고수사관은그날오후나를구석으로밀어놓고살인죄에대한심문을벌인십대에대해말하고 싶어했습니다. 그가아이를앞혀놓자그아이는자신이살인이라는심각한범죄를저질렀다는사실에대해깨닫게되었다고말했습니다.

The detective says the teenager looks up at him and says "Nah man, I ain't killed nobody, I've seen homicide watch, they lockin' people up for that shit now."

수사관은십대아이가그를올려다보면서“형사님, 저는누구도죽이지않았습니다. 저는 Homicide Watch를줄곧지켜봐왔고, 그들은이러한재수없는일로사람들을묶어놓았습니다.”라는말을했다고전했습니다.

Now I don't know this kid, this teenager, and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his case. I don't know if he was arrested or not, what I like to think maybe happened is that he was nearby, maybe he had a gun or a knife, and he was angry.

현재나는그십대아이에대해알지못하며, 그사건에서무엇이일어났는지도알지못합니다. 나는그아이가불잡혔는지아닌지는알지못하지만, 제가생각하기에그는사건의근처에서총또는 칼을들고있었으며굉장히화가난상태였다는것입니다.

But in the moment when he was going to make a decision, he remembered the stories he'd read about the victims and the suspects, and he said 'Nah man, I can't kill nobody, I'd seen homicide watch.'

그러나 그가 결정을 내리려는 찰나에 , 그는 그가 희생자와 피의자에 관해 읽었던 이야기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사님,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Homicide Watch를 지켜봤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at’s success for me. That one story, and if there’s nothing else that homicide watch does, that is the story I will remember. But what’s important to remember and I think for you to take away from this is that our success can be attributed to our digital innovations only as far as it has helped us create a space for this young man to read those stories and to make those decisions and to change.

그것이 저에겐 성공이었습니다. 만약 Homicide Watch가 더 이상 행한 보도가 없다면, 그 하나의 스토리가 제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혁신이 젊은 층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야기를 읽고 결정을 내리고 변화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And so our success is not about the tools we use or the platforms we develop but about the way they are used. As we continue to iterate and expand as I said hopefully nation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we remember this.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나 우리가 발달시킨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하고 확장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That the technology changes. But what we believe in stays the same. What we believe in is people. Lucki’s friends carrying pink and purple balloons at her memorial, her sister on that small porch marked by the bullets singing amazing grace and her family 2 years later coming to homicide watch leaving a greeting for her.

기술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입니다. 현관에서 총에 맞아 죽은 그녀의 여동생의 장례식장에 분홍색과 보라색 풍선들을 들고 온 럭키의 친구들은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그녀의 가족은 2년 뒤 Homicide Watch로 찾아와서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갔습니다.

I hope you all killers do something positive with their lives while they can, because it’s the only way to honour your memory.

저는 살인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무언가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그들의 기억을 영예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We believe in the police officer who reaches out saying I was a police officer in your city, a big white boy from the country, I drove a pick-up truck and voted republican every election since I was 18, and guess what, my heart hurt like hell every time I saw so many of these people laying face down in the street or had to hear their last words, we believe in him.

우리는 연락을 취해서 나는 당신이 사는 도시의 경찰이며, 몸집이 큰 백인 소년이고, 픽업트럭을 운전하며, 18세 이래로 매년 공화당에 투표했고 또한 나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늘어뜨리고 거리를 걷거나 그들의 마지막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다는 애길 하는 경찰관을 믿습니다.

We believe in the families of suspects, people like Zachary Sims senior who's son's Zachary Sims junior, was arrested on a murder charge.

우리는 아들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 노령의 Zachary Sims와 같은 피의자의 가족들을 믿습니다.

Mr Sims wrote that he believed that his son was innocent because his son had always told him the truth, he wrote I wish the family of 지머벨? (19:24) well as they continue to deal with their loss, God bless all concerned.

미스터 Sims는 그의 아들이 항상 진실을 말해왔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무고하다고 믿는다고 서술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머벨?과 같은 가족이 그들의 슬픔을 다루기를 희망하고, 신의 가호가 모두에게 미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Mostly though, we believe in the strangers among us, the people whose names we might now know, but the people who come forward in moments of hor.(19:42) people like this woman who when faced with tragedy, respond with love, we believe in her.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이름을 알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러나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 곁으로 오는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극을 마주친 순간에도 사람으로 반응하는 이 여성과 같은 사람을 믿습니다.

She was on the train with Antuan Patty's mother when the call came that Antuan had been killed. I comforted her, she wrote. We have to do better. We believe in people. Thank you very much.

그녀는 Antuan이 살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Antuan Patty의 어머니와 같이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Antuan의 어머니를 달랬다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 감사합니다.

Thank you.

.

